

성 김대건 안드레아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 대축일 <9월 20일>

시편 126(125), 1-2-3. 2-3. 4-5. 6(© 5)

손상오 신부 작곡

(후렴) 눈 물 로 씨 뿌 리 던 사 람 들 환 호 하 - 며 거 두 리 - 라

1. 주님이 시온을 귀양에서 풀어 주 실 때 우리는 마치 꿈꾸는듯 하였 네
 2. 그때 민족들이 말하 였 네 주님이 저들에게 큰일을 하셨구 나
 3. 주님, 저희의 귀향살 이 네 곁 땅 시냇물처럼 되돌리소 서
 4. 뿌릴 씨 들고 울며 가던 사 람 들 _____

_____ D.S.
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넘 치 고 우리 혀에는 환성이 가득 찼 네
 주님이 우리에게 큰일을 하셨 기 에 우리는 기뻐하였 네
 눈물로 씨뿌리던 사 람 들 환호하며 거두리 라
 _____ 곡식단 안고 환호하며 돌아오리 라